

# 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5.7.4.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-

- ◇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, 국내·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

## 1. 국내

### □ 정부

- **국정기획위, 현대차·기아 남양연구소 방문...자율주행 육성 의지** ('25.7.2. 이데일리)
  - 국정기획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전략적 육성을 약속함
  - 현대차그룹은 이날 자율주행 기술은 물론 로봇틱스, 수소·에너지 분야의 기술 현황과 향후 로드맵을 발표함
  - 정부는 기업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자율주행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지원할 계획임

### □ 기관

- **한국건설기술연구원, 수소배관용 압력조정기 시제품 제작**('25.7.2. 가스신문)
  -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소배관용 압력조정기의 국산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과 성능 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함
  - 이번 연구는 설계 요소 발굴과 시뮬레이션 평가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둠
- **울산테크노산단에 수소드림가로 등 조성...2027년 완공**('25.7.3. 뉴시스)
  -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울산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수소를 테마로 한 특화거리와 자연 친화형 환경을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임

- 이번 사업에는 총 28억 6000만원이 투입되며, 근로자 쉼터와 녹지 등도 함께 마련될 예정임

- **인니 공무원 20명 울산TP 방문 수소경제·재생에너지 벤치마킹**  
(25.7.2. 울산신문)

- 인도네시아 에너지 공무원 20여명이 한국국제협력단(KOICA)의 초청 연수로 울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한국의 수소경제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실증모델을 견학함
- 울산테크노파크는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과 실증 인프라 현황 및 성과를 설명했으며,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수소 협력과 기술 공유를 확대할 계획임

## □ 산업계

- **현대글로비스, 현대건설과 127GWh 가상전력 구매계약**(25.7.3. 아시아경제)

- 현대글로비스가 전력 중개거래사인 현대건설과 127GWh 규모의 재생에너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해 사업장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임
- 이를 통해 연간 약 23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, 204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%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임

## □ 지자체

- **이강덕 포항시장 “철강도시 포항을 이차전지, 바이오,수소 등 글로벌 경쟁도시로 도약”**(25.7.2. 프레시안)

- 이강덕 포항시장은 취임 11주년을 맞아 포항을 이차전지, 바이오, 수소 등 첨단 신산업과 녹색 생태도시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밝힘
- 앞으로도 교통, 디지털, 복지,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항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

○ **광명시, 하반기 전기차 210대 구매 지원...친환경 도시 행보 이어가**  
(‘25.7.2. 머니투데이)

- 광명시는 하반기에 전기승용차 150대, 전기화물차 60대 등 총 210대의 친환경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힘
- 전기승용차는 1대당 최대 980만원, 전기화물차는 최대 1650만원, 수소차의 경우 최대 3250만원, 전기이륜차는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, 광명시에 6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, 법인, 공공기관 등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□ 연구계

○ **에너지연, 암모니아 분해 촉매기술 개발..."수소 생산 경제성 ↑"**  
(‘25.7.3. 연합뉴스)

-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수소연구단 구기영 박사 연구팀은 수소 생산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암모니아 분해 촉매 합성법을 개발함
- 개발한 촉매는 부틸렌글리콜을 사용하지 않은 기존 루테튬 촉매에 비해 활성화 에너지(화학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)는 20%가량 적은 반면, 수소 생성률은 1.7배 높아졌으며, 경제성도 3배 이상 향상됨

○ **김동하 이화여대 화학·나노과학과 교수 연구팀, 세계 최초 수소 생산 성능 높은 새로운 전기촉매 개발"**(‘25.7.3. 스마트경제)

- 이화여대 김동하 교수 연구팀은 플라즈모닉 효과와 키랄 스핀 선택성, 이리듐 단일 원자 촉매를 결합한 ‘안테나-반응기 시스템’을 개발해 산성 환경에서 수전해 효율과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킴
- 이 촉매는 기존 대비 3.5배 빠른 반응 속도와 4.8배 향상된 내구성을 보이며,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입증함

## II. 해외

### □ 글로벌 정책 동향

- 영국 재무장관, JCB의 1억 파운드 수소엔진 개발 현장 방문(Fuel Cells Works, 25.6.30)
  - 영국 재무장관은 6월 26일 스태퍼드셔주 JCB 본사를 방문해, 1억 파운드 규모 수소엔진 R&D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함
  - JCB는 더비셔주 포스턴에서 100여 명의 엔지니어가 건설장비용 수소 내연기관을 개발 중이며, 시제품은 굴착기와 백호로더 등에 적용됨
  - 리브스 장관은 모바일 수소 충전기(HyKit)\*를 통한 장비 연료 주입을 직접 시연하며, 수소 충전 기술의 간편성과 상용 가능성을 강조함
  - \* HyKit: 건설 현장 등에서 수소 장비에 연료를 공급하는 이동식수소 충전기
  - 해당 수소엔진은 최근 EU 및 영국에서 비도로 이동장비\*(NRMM)용 형식승인을 획득함에 따라, 제3자 장비(OEM)에 장착하거나 시판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짐
  - \* Non-Road Mobile Machinery) 도로 외 환경에서 사용하는 건설·농업·산업용 이동장비
  - JCB 회장은 “기술은 준비됐으며, 이제 필요한 것은 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투자”라고 강조하며, 시장 공급망 확대 필요성을 언급함



## □ 글로벌 산업 동향

- 중국, 칭다오항서 첫 수소 추진 예인선 운항 개시 (Hydrogen Insight, 25.6.28)
  - 중국이 자국 최초의 수소-전기 하이브리드 예인선인 '칭덴튀 1호(Qing Dian Tuo 1)'를 6월 26일 산둥성 칭다오항에서 공식 운항에 투입함
  - 수소 연료전지와 액냉 리튬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9노트 속도(약 시속 16.7km)로 12시간 무탄소 운항이 가능하며, 82톤의 견인력과 최대 용량 리튬배터리를 갖춘 중국 내 SKS 최강 성능의 항만 예인선으로, 소음·수명·에너지 효율도 개선이 기대됨
  - 선박의 설계와 제작은 칭다오항만그룹 리안강 혁신팀이 주도했으며, 베이더우 위성항법\* 및 자동 고속충전 스테이션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됨
  - \* 중국이 독자 개발한 GPS급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
  - 항만 당국은 2025년 중반까지 수소 연료 기반 철도 크레인 10기와 300kW급 열병합 연료전지를 도입해 실증을 진행할 예정임
  - 본 사업은 칭다오항의 수소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며, 항만의 스마트화 및 탈탄소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

